

# 부모-대리양육자 관계 척도의 개발에 관한 연구

이진화

경희대학교 대학원 아동주거학과 박사과정 졸업

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상황에 맞는 부모-대리양육자 관계의 여러 차원과 관계의 질을 적절히 측정할 수 있는 타당하고도 신뢰로운 도구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. 이를 위해 1996년 James Elicker등에 의해 개발된 "The Parent-Caregiver Relationship Scale: Rounding Out the Relationship System in Infant Child Care (PCRS)"를 토대로 하여, 국내외의 인간관계와 관련된 척도와 부모, 대리양육자들과의 면접을 통해 문항을 수집한 후 아동학전문가 5인의 내용타당도를 거치고 예비조사 과정을 거쳐, 서울, 부산, 울산 지역에 거주하며 어떤 형태로든 대리양육을 받고 있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와 그 대리양육자들을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. 그 결과, 본 연구에서 개발된 부모-대리양육자 관계 척도의 문항구성은 부모용과 대리양육자용 척도 둘 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용 3요인(신뢰, 양육, 의사소통) 34문항, 대리양육자용 3요인(배려, 양육, 의사소통) 29문항이 추출되었다. 또한 신뢰도도 부모용 Cronbach's  $\alpha = .95$ , 대리양육자용  $.94$ 로 높게 나타나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는 부모-대리양육자 관계를 측정할 수 있는 신뢰롭고도 타당한 도구가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.